



# ‘노인(老人)’에서 ‘예인(睿人)’ 으로 거듭나기

글 김임춘식(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한국** 사회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21세기의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등장할 장수사회에 대한 대비는커녕 노인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사회나 자녀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아무도 노인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복지는 사회가 노인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젊은 날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투자를 충분히 한데 대해 젊은 세대도 그들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어쨌든 고령화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문제를 일으킨다. 개인적으로 소득상실 또는 수입감소로 인한 경제적 빈곤,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약화, 사회·심리적 고립, 여가 해소 등의 문제가 생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는 '뛰는 고령화에 기는 노인복지'에 대해 정부가 진지한 관심과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부터라도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예전에는 병든 노부모나 버려진 노인의 문제를 '효(孝)'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족부양체제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도저히 노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폐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노부모의 오랜 병수발로 평범한 감정이 붕괴되기도 한다. 근래에는 중산층 사람들도 더 이상 노부모 모시기가 힘들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나 '효'라는 전통윤리만으로 고령 사회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의 40~50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시작해 효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회 전체가 지혜를 짜내 고령화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현대문명은 장수라는 인간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었다. 이러한 장수사회에서 노인의 사회통합은 정부의 더 면밀한 계획 하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 정보화 사회의 속성상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신세대 노인 증가의 현실에도 여전히 노인이 불리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산업화 논리와 압축성장 과정에서 희생된 과거 세대의 노인을 위하여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노인들의 자존감과 개별성을 보호하여 사회구성원으로써 당당히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연장된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신세대 노인을 위하여 적극적 연령통합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울러 가족주의 전통과 효 규범의 현실적 적응을 통하여 가족의 유대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정책을 펴 감으로써 노동력 및 지식 정보 인프라를 형성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지구화와 정보화, 그리고 고령화의 21세기에 노인층의 문화를 건강하고 보람 있게 향상시키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슬기롭게 늙는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인(老人)'에서 '예인(睿人)'으로 거듭나 연령에 맞는 역할과업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멋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